

# 百進分類法設計

정 필 모\*

## 〈목 차〉

緒 論	A. 主類의 설정기준과 그 수
I. 現代主要分類法의 기호와 主類의 문제	B. 主類의 배열과 百進法
A. 종래의 分類記號와 主類의 수	III. PCC의 제2단계 設計
B. 최적의 分類記號	A. 主類의 伸縮
C. 종래의 分類法에 있어서의 主類의 설정	B. 綱이하의 細分
II. PCC의 基礎設計	C. 기호의 組合과 制限
	IV. 共通補助記號設計
	V. PCC의 각 主題別 設計
	ABSTRACT

## 緒 論

현대의 일반적인 文獻分類法에 있어서 대표적인 분류법은 DDC, LCC 및 CC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DDC는 1876년에 편찬되어 그동안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改訂되어 1989년에는 제20판이 발행되었고, LCC는 1904년에 그 개요가 발행된 이래 역시 분류전문가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연구되고 개정이 진행되고 1988년에는 1987년까지의 개정본 전체36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CC는 1933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래 그동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되고 개편되어 1987년에 제7판이 발행되었다.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와 같이 DDC는 19세기 말기에, 그리고 LCC와 CC는 20세기 초기의 학문적 기초에 바탕을 두고 창안된 것으로 이들은 모두 그동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개정되고 발전되어왔으나 각각 최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지엽적이며 부분적인 개선과 學問의 발전에 따른 細分展開만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기본골격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DC는 최초로 人文系 단과대학인 Amberst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고, LCC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당초에 국제적인 통용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CC는 印度에서 일반적인 도서분류법으로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도 국제적인 통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모두 東洋의 문헌이나 동양에 관계된 문헌을 분류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시각에서 주로 이상의 대표적인 분류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또는 改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서 이를 기초로 현대적인 새로운 문헌분류법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설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문헌분류법에 있어서 그 전개的方法是 주로 아라비아숫자 두자리수로, 즉 百進式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명칭을 백진분류법(Centesimal Classification)라고 하고 본고에서는 CC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PCC(Plan for Centesimal Classification)라고 命名하고자 한다.

단 본고에서는 PCC전체의 설계에 소요될 시간관계상 그리고 紙面관계상 앞의 目次에 제시된 내용중 제3장 PCC의 제2단계 設計까지만을 제시하고, 제IV장 PCC의 共通補助記號設計와 제V장 PCC의 各主類別 設計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 I. 現代主要分類法の 기호와 主類의 문제

### A. 종래의 分類記號와 主類의 수

현대의 주요분류법을 살펴보면 Dewey는 DDC에서 知識전반을 우선 다음과 같이 0부터 9까지 10개의 主類(main class)로 구분하였고(1876),

#### <표 1> Main Classes of DDC<sup>1)</sup>

000 General works <sup>2)</sup>	500 Natural science
100 Philosophy	600 Useful arts
200 Theology	700 Fine arts
300 Socialogy	800 Literature
400 Philology	900 History

미국의회도서관의 분류법(LCC)에서는 최초로 지식전반을 다음과 같이 A부터 Z까지(I O W X Y는 제외하고) 21개의 主類로 구분하였다. (1904)

#### <표 2> Main Classes of LCC

A General works : Polygraph	M Music
B Philosophy and Religion	N Fine arts
C History : Auxiliary sciences	P Philology and literature
D History : General and old world	Q Science
E-F History : America	R Medicine
G Geography : Anthropology : Folklore : etc.	S Agriculture, etc.

1) Dewey, Mevil,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Mass, Amberst, 1876. p.47.

2) Generalities라는 主題名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여기에 6가지 綱이 전개됨.

H Social sciences	T Technology
J Political science	U Military science
K Law	V Naval science <sup>3)</sup>
L Education	Z Bibliography and library science

Ranganathan의 Colon분류법(Colon Classification : CC 1933)은 최초에 다음과 같이 27개의 주류로 구분하였다.

〈표 3〉 Main Classes of CC1<sup>4)</sup>

9 Generalia	N Fine arts
A Science(General)	O Literature
B Mathematics	P Philology
C Physics	Q Religion
D Engineering	R Philosophy
E Chemistry	S Psychology
F Technology	T Education
G Natural Science(General) and Biology	U Geogrophy
H Geology	V History
I Botany	W Politics
J Agriculture	X Economics
K Zoology	Y Miscellaneous social sciences
L Medicine	including sociology
M Useful arts	Z Law

3) Kumar, Krishan.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47.

4) Neelameghan, A. Primary basic subject by Fission.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Bangalore, Lib. SC. 10 : 1973 : paper G. p.160

Bliss의 書誌分類法(A System of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 1936)에서는 이른바 先行類(anterior classes)를 1부터 9까지 전개하고 主類(main classes)를 A부터 Z까지 26, 모두 36개로 전개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현대분류표의 主類의 전개에 있어서 19세기 말기에 창안된 DDC(1876)는 10개의 주류였으나 20세기 초기에 개발된 LCC(1904)는 21개의 주류로 늘어났고, 그후 1933년에 편찬된 CC는 27개의 주류로 증가했으며, 그보다 3년후인 1936년에 편찬된 Bliss의 BC는 주류가 35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時代의 발전에 따라서 主類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LCC는 그후 다음과 같이 B의 哲學과 宗教, H의 社會科學, P의 語學과 文學, Q의 科學, T의 技術科學분야에서 각각 下位類(subclass)라는 것이 70여개로 증가하였으니 이것도 주류의 수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

〈표 4〉 LCC의 하위류

B Philosophy and religion :

B-BJ : Philosophy

BL-BX : Religion

H Social sciences :

HA : Statistics

HB-HK : Economies

HM-HX : Sociology

P Philology and literature :

P-PA : Philology : Classical philology and literature

PB-PH : Modern European languages

PG : Russian literature

PJ-PM : Languages and Literatures of Asia,

Africa, Oceania, America : Mixed languages :

## Artificial languages

PN, PR, PS, PZ : Literature : General, English,

American : Fiction and Juvenile literature

PQ, part 1 : French literature

PQ, part 2 : Italian, Spanish, Portuguese  
literatures

PT, part 1 : German literature

PT, part 2 : Dutch and Scandinavian literatures

## Q Science :

QA : Mathematics

QB : Astronomy

QC : Physics

QD : Chemistry

QE : Geology

QH : Natural history (general)

QK : Botany

QL : Zoology

QM : Human anatomy

QP : Physiology

QR : Microbiology

## T Technology :

TA : Engineering (general) : Civil  
engineering (general)

TC-TH : Civil engineering

TJ : Mechanical engineering and machinery

TK : Electrical engineering :

Electronics : Nuclear engineering

TL : Motor vehicles : Aeronautics :  
 Astronautics  
 TN : Mining engineering : Metallurgy  
 TP : Chemical technology  
 TR : Photography  
 TS : Manufactures  
 TT : Handicrafts : Arts and crafts  
 TX : Home economics

CC도 그후 1960년에 개정된 6판에서는 Main classes가 47개<sup>5)</sup>로 증가하고, 1973년에 Neelameghan등에 의해서 제시된 제7판 준비판의 Main classes는 다음과 같이 82개<sup>6)</sup>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상에서 말한 모든 분류법의 主類(main class)에 있어서 하나의 主類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DDC에 있어서는 하나의 類번호에 두개의 영(00)을 더 붙여서 나타내지만 사실상의 주류의 기본기호는 0부터 9까지의 각각의 하나의 기호이고, Bliss의 BC는 물론 주류를 1부터 9, 그리고 A부터 Z까지의 35개類를 각각 하나의 기호로 나타냈으며, LCC는 근년에 下位類(subclass)를 두개의 알파벳대문자로 나타냈지만 초기의 주류는 모두 알파벳대문자 한자로 나타냈고, CC도 후에 새로이 늘어난 主類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알파벳대문에 ABC TUVWXYZ (序數的가치만 갖고 의미는 갖지 않는 기호(empty digit)로 사용)자를 붙여서 두자 이상의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도 점차 늘어났지만 최초에는

5) Ranganathan, S. R. *Colon classification*. 6th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0. pp.2-3.

6) Foskett, A. C.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4th ed. London, Clive Bingley. 1982. p.402. (pp.404.405에 Outline of CC7에는 이른바 부분포괄주류(partially comprehensive classes) 17개를 합하여 99개가 열거되어 있음)

각각의 類를 하나의 기호로 나타냈다. 이와 같이 LCC나 CC에 있어서 후에 어쩔 수 없이 알파벳대문자 두자 이상으로 나타낸 기호도 다수 있지만 만약 적절한 문자나 기호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하나의 기호로 나타냈을 것이다.

### B. 최적의 分類記號

모든 기호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누구에게나 통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호라도 그것이 복잡하고 명료하지 못하여 그 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누구에게나 쉽게 식별되지 못하면 그 기호는 기호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의 분류기호는 이상의 요건 이외에도 더 중요한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필수요건이란 기호의 배열에 있어서 그 순서의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용이하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 분류기호를 매기게 될 경우 분류기호자체에 의해서 문헌의 내용이 잘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보다도 각각의 분류기호에 의해서 文獻이 서가상에 배열되고, 目錄이나 書誌에 배열되는 각각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분류기호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누구에게나 통달성이 있고, 배열순서상의 개념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도서관의 분류기호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문자와 숫자를 혼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요건은 그것이 국제적인 일반분류법이라면 더욱이 문자나 숫자중에서 어느 것이던 그것이 국제적인 통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양의 漢字나 한글, 日本의 가나 등은 국제적 통용성이 적으며, 漢文의 숫자나 로마숫자 등은 우선 글자의 모양에서도 기호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문자로서는

알파벳문자가 이와 같은 요건에 가장 알맞고 숫자로서는 아라비아숫자가 가장 알맞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주요분류법들이 모두 영미계에서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상에서 말한 분류법들의 기호가 주로 아라비아숫자나 알파벳문자로 혹은 이 두가지의 숫자와 문자가 혼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분류기호로서의 요건에 알맞는 것은 알파벳문자 한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하는 편이 더 좋고, 그보다도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아라비아숫자는 분류기호로서의 최적의 요건 즉 간단하고, 명료하고, 알파벳문자보다도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으며, 배열순서상의 개념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제서지학회가 십진분류법(DC)을 채택한 것은 “아라비아숫자기호가 국제적인 로마 문자(알파벳)보다 더 국제적이라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sup>7)</sup>

### C. 종래의 分類法에 있어서의 主類의 설정

A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의 주요분류법중에서 DDC의 主類는 모두 10개이고, LCC는 21개(下位類 86)류이며, CC는 초판의 경우는 27개류였으나 제6판의 경우는 47개, 제7판에 이르러서는 82개류로 증가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모든 분류법에서 각각의 主類(main classes)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현대의 分類法중 가장 이론적이며 체계적인 분류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CC에서 마저도 이들 主類를 모두 어떠한 기준에서 主類로 설정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다. 아

7) Bliss, H. E.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and subject approach to books*. New York, H. W. Wilson, 1939. p.226.

마도 하나의 類가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설정하  
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우선 이상의  
네가지 분류표를 상호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CC7판의 주류를 기초로 BC의 주류, DDC의 主  
類와 綱, LCC의 主類와 下位類를 대비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CC7  
판의 주류가 최신의 것으로 주류의 수가 가장 많은 82개나 되므로 비교  
에 있어서 나머지 분류법의 주류를 거의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들 네가지 분류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主題의 용  
어가 상호일치하지 않는 것이 간혹 있으나 이들 각각의 내용이나 개념  
이 상호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표 9〉 Main Classes of CC7

		BC	DC	LC
Z	Generalia		○	○
1	Universe of subjects: structure and development			
2	Library science	○	○	
3	Book science		○	
4	Journalism			
5	Exhibition technique			
6	Musology			
7	Systemology			
8	Management science			
9b	Career			
9c	Metrology			
9d	Standardization			
9f	Research methodology			
9g	Evaluation technique			
9p	Conference technique			

9p	Communication				
9Q	Symbolism				
9S	Computer science				
A	Natural sciences			○	○
B*ZZ	Mathematical science				
B	Mathematics			○	○
BT	Statistical calculus				
BV	Cybernetics				
BX	Astronomy			○	○
BZ	Astrophysics				
C*Z	Physical sciences				
C	Physics	○		○	○
CV	Space physics				
D*Z	Engineering and technology				○
D	Engineering			○	
DT	Draughtsmanship				
E*Z	Chemical sciences				
E	Chemistry	○		○	○
F	Chemical technology			○	○
G*Z	Biological sciences				
G	Biology	○		○	
GV	Microbiology				
GWA	Molecular biology				
GWB	Biomechanics				
GWC	Biophysics				
GX	Biochemistry				
H*Z	Earth sciences				
H	Geology			○	○
HUB	Geodesy				
HV	Geophysics				
HWT	Geochemistry				○
HX	Mining				

I*Z	Plant sciences			
I	Botany	○	○	○
J	Agriculture			
JX	Forestry		○	○
K*Z	Animal sciences			
K	Zoology			
KX	Animal husbandry	○	○	○
L*Z	Medical sciences			
L	Medicine		○	○
LU5	Public Health			
LU6	Hospital			
LU7	Sanitorium			
LX	Medical technology			
LYX	Pharmacology			
M	Medical jurisprudence			
MZ*	Useful arts			
ZZ	Humanities			
N	Fine arts	○	○	○
O	Literature		○	○
P	Linguistics	○	○	○
Q	Religion	○	○	○
R	Philosophy		○	○
S*Z	Behavioural sciences			
S	Psychology	○		
T*Z	Social sciences	○	○	○
T	Education	○	○	○
U	Geography		○	○
V	History	○	○	○
VX	Historical source			
W	Political science	○	○	○
WX	Geopolitics			
X	Economics	○	○	○

XX	Economics in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Y	Sociology	○		○
Z	Law	○	○	○
		17	29	27

다음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와 BC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주제는 17가지이고, CC와 DDC사이에 일치하는 주제는 29이며, CC와 LCC사이에 상호 일치하는 것은 27주제이다. 그리고 네가지 분류법 모두에 걸쳐 동일한 類는 13개이고, 세가지 분류법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14개이며, 두가지 분류법 사이에만 일치하는 것이 6개이다. 그리하여 두가지 이상의 분류법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주제는 모두 33개가 된다.

한편 CC6에서 47개였던 주류의 수가 CC7에서 82개로 급속히 증가한 원인중의 하나는 CC6에서 다만 주제의 범위만이 다른 동일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B\* Mathematical Sciences와 B Mathematics가 CC6에서 양자 모두 주류로 설정되었는데, CC7에서는 이와 같은 주류가 다음과 같이 8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범위만이 다른 동일주제(CC7)

B*ZZ	Mathematical sciences
B	Mathematics
C*Z	Physical sciences
C	Physics
E*Z	Chemical sciences
E	Chemistry
G*Z	Biological sciences
G	Biology
H*Z	Earth sciences
H	Geology

I*Z	Plant sciences
I	Botany
K*Z	Animal sciences
K	Zoology
L*Z	Medical sciences
L	Medicine

이러한 예는 DDC나 LCC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CC7도 아직 접해보지 못했으니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들 동일 주제들을 모두 각각 주류로 설정하면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각각의 주류에 대해서는 그 개념범위를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 II. PCC의 基礎設計

### A. 主類의 설정기준과 그 수

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類法에 있어서 主類가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여기에서는 전항에서 분석한 바 현대의 주요분류법중 두가지 이상의 분류법사이에서 일치하는 다음과 같은 33개 主題는 일반적인 주류로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主類로 설정하고자 한다.

#### <표 6> 1차로 선정된 주류

Generalities	Medicine
Library science	Useful arts(technology)
Journalism	Fine arts
Natural science	Literature
Mathematics	Linguistics(language)

Astronomy	Religion
Physics	Philosophy
Technology	Psychology
Engineering	Social science
Chemistry	Education
Chemical technology	Geography
Biology	History
Geology	Political science
Mining	Economics
Botany	Sociology
Agriculture	Law
Zoology	

둘째로는 學問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細分化되어가고 있고, DDC와 LCC가 계속 개정되어 그 細分化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가장 세분화된 일반분류법이기 때문에 이들 분류표에 있어서 비록 綱이나 또는 細目下에 전개되어 있을지라도 그 밑에 30개 이상의 항목으로 細分이 이루어져 있는 주제는 또한 제2차적으로 主類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30개 이상의 항목”이라는 제한을 설정한 것은 하나의 類 밑에서 綱과 目에서 전개될 최소한의 숫자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DDC와 LCC에 있어서 하나의 主題가 하나의 綱이나 目이나 또는 細目에 현재 배열되어 있을지라도 그 主題下에서 30가지 이상으로 細分展開된 主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37개 주제이다.

## 〈표 7〉 2차로 선정된 주류

Information science	Machnine engineering
Communication	Military engineering
Public administration	Nautical engineering
Management science	Civil engineering
Commerce	Food technology
Transport	Manufacturing engineering
Customs folklore	Manufacture for specific uses
Home economics and family liv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Palcontology	Astronautica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Building engineering
Human physiology and anatomy	Civic and landscape arts
Discase	Animal husbandry
Pharmacology and therpacutics	Applied physics
Decorative(visual) arts	Electrical engineering
Surgery	Pictorial arts (painting)
Gynecology and experimental medicine	Plastic arts (sculpture)
Promotion of health	Building arts (architecture)
	Music
	Recrcational and performing arts
	Sprots

셋째로 현재로서는 분류법상에 細分展開가 되어 있지 않아도 앞으로 발전과 분화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전망되는 遺傳工學(genetic engineering)과 海洋工學(ocean engineering)도 각각 하나의 類로 설정하고자 한다.

넷째로 일반통계학(general statistics)은 현재 DDC에는 綱(310)에 전개되어 있고, 이 통계학은 30개 이상으로 細分되지는 않았으나 이것이 다른 類下에서 전개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예외적으로 이를 하나의 독립된 類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人文科學(humanities)은 오직 CC에만 하나의 類로 설정되어 있고, DDC에서는 총류의 한 細目(001.3)에 배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학문의 체계상 哲學 宗教 藝術 文學등을 포괄하는 광범한 영역이므로 이를 하나의 類로 설정하고자 한다.

끝으로 漢醫學(oriental medicine)은 현재까지 어느 일반분류법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독특한 성격으로 인하여 이를 현대의학에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현재로서도 상당히 세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또한 하나의 類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를 각각 새로이 하나의 主類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어느 주제가 발전되고 分化되어 하나의 主類로 설정될 필요성이 발견되면 이를 또한 主類로서 설정하고자 한다.

〈표 8〉 3차로 선정된 主類

Genetic engineering  
 Ocean engineering  
 General statistics  
 Humanities  
 Oriental medicine

이상과 같이 한다면 현대의 주요 분류법중 두가지 이상의 분류법의 主類와 서로 일치하는 主題 33개, DDC나 LCC에 있어서 하나의 主題가 30가지 이상으로 細分展開된 것 37개, 기타 5개 모두 75개 主類가 되는 것이다.

## B. 主類의 배열과 百進法

종래의 분류법들은 主類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도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열순서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근년에 朴奉石이 “精神科學으로부터 物質科學으로의 배열”<sup>8)</sup>을 제시한 바 있고, Ranganathan學派에서 이른바 “만일 두개의 類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자가 후자의 앞에 와야한다”는 구체성 증가의 원칙(principle of increasing concreteness)<sup>9)</sup>을 설정하고 CC의 主類를 전개하고 있으나 배열된 결과는 이상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일단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CC의 주류배열은 總類와 學際의主題들(interdisciplinary subjects)을 앞세운 것은 좋으나 그 다음은 크게 보아 自然科學, 技術科學, 人文科學, 社會科學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Ranganathan學派는 그들의 본래의 전공이 과학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을 앞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PCC에서는 전장에서 설정한 75개의 主類를 우선 CC에서와 같이 네가지 그룹으로 대별하되 이들을 첫째 인문과학, 둘째 사회과학, 셋째 자연(순수)과학, 넷째 기술과학의 순으로 배열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순서가 朴奉石이 제시한 “精神科學으로부터 物質科學으로의 배열”기준에도 부합되고, Ranganathan學派에서 제시한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의 전개원칙”에도 부합되며, 學問의 발전과정이나 일반적인 통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용자들의 資料의 이용을 위한 편의성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전제는 PCC에서는 주류의 배열이나 그 이하의 綱·目的 배열에 있어서도 學問 또는 주제간의 階層(hierarchy)관계는 크게 고려

8)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 서울, 國立圖書館, 1947. p.1, 序說.

9) Matthow, G. O. *The Influence of Ranganatham on Faceted Classification*. Case Western Research Univ., 1980.

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心理學은 哲學에서 파생했고, 經營學은 經濟學에서 파생했으며, 電子工學은 電氣工學에서 파생했으나 이들 심리학, 경영학, 전자공학은 모두 현대에 있어서는 크게 발전하여 그들 각각의 母體 이상으로 광범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階層관계를 분류기호로 나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각각의 모든 主類 밑에서 전개될 細分主題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이상에서 제시한 다섯가지 主類群중에서 우선 이른바 先行類에 있어서는 총류(Generalities)를 제1위로 하고, 제2위에는 학제적 주제중에서도 보다 광범위한 주제인 Computer science를 두며, 제3위에는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제4위에는 Communication, 제5위에는 Journalism을 두고자 한다.

人文科學主類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 가장 상위주제인 인문과학(humanities)를 제1위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관련된 주제끼리 인접시켜서 배열하고자 한다.

〈표 10〉                      인문과학주류군

Humanities	Pictorial arts (Painting)
Philosophy	Plastic arts Sculpture
Religion	Building arts (Architecture)
Language and linguistics	Music
Literature	Performing and recreational
Arts	arts
Civil and landscape arts	Sports
Visual arts (Decorative arts	Psychology

위에서 心理學을 뒷부분에 둔것은 본래 심리학이 哲學에서 파생된 학

문이긴 하지만 현대에는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응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결되는 사회과학 분야와 가능한 접근시키기 위한 것이다.

社會科學主類群에서는 다음과 같이 歷史와 地理를 앞세우고 다음으로 가장 상위주제인 사회과학(social science)을 배정하고 그 다음은 가능한 한 상호관련된 주제끼리 인접시켜서 배열하고자 한다.

〈표 11〉 사회과학주류군

History	Public administration
Geography	Law
Social science	Customs folklore
Sociology	Home economics and family living
Social services	Economics
General statistics	Management science
Education	Commerce
Political science	Transport

위에서 歷史와 地理를 앞세운 이유는 이들이 그 성격상 사회과학에 속하지만 이들은 또한 人文科學과의 관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선에 배정하기 위한 것이며, Management science, Commerce, Transport를 뒷부분에 배정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産業과의 관계가 가장 크므로 가능한 끝부분에 배정될 技術科學분야와 인접시키기 위한 것이다.

自然科學主類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상위주제인 자연과학을 앞세우고, 다음에는 모든 과학기술의 기초학문인 수학을 제2위에 두며, 이어서 관련된 학문주제를 배열하고자 한다.

## 〈표 12〉 자연과학주류군

Natural science(pure science)	Botanical science
Mathematics	Zoological science
Physics	Paleontology
Chemistry	Earth science
Biology(life science)	Astronomy
Genetic engineering	

이상에서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은 분명히 응용과학인데 순수과학의 生物學 다음에 배정한 것은 그것이 성격상 순수과학에 가깝고 生命科學분야와 더욱 밀접하기 때문이다.

技術科學主類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분야의 상위주제인 기술과학을 앞세우고, 다음은 醫藥學분야, 農蓄水産분야, 工學工業분야순으로 배정하고자 한다.

## 〈표 13〉 기술과학주류군

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Medical science	Electrical engineering
Human physiology and anatomy	Electronical engineering
Disease	Astronautical engineering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Machine engineering
Surgery	Mining and related operations
Gynecology and experimental medicine	Military engineering
Oriental medicine	Naval engineering
Promotion of health	Civil engineering
Agriculture	Environmental engineering

Animal husbandry	Food technology
Nautical engineering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	Manufacture for specific uses
Applied physics	Building engineering

이상과 같이 主類를 설정하고 배열한다면 主類의 수는 모두 75개이다. 이 75개의 주류를 배열하는데 있어서 첫머리기호를 알파벳문자로 하던 아라비아숫자로 하던 한자리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고, 만약 두글자로 나타내되 알파벳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한다면 기호수가 너무 많이 남아돌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지도 못하다. 그보다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 두자리수로 표시하는 편이 기호의 수도 알맞고 기호의 명료성, 배열순서의 명확성, 국제적 통용성 등의 면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표에서는 이들을 두자리수 즉 百進式으로 나타내고 앞으로 각 類의 細分 즉 綱과 目的 전개에 있어서도 주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개하되 분류전개되는 항목수가 한자리수로도 충분한 경우는 한자리수로 즉심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이 분류표를 百進分類法이라고 命名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主類를 다음과 같이 00부터 99까지의 사이에 배열하되, 이들 75개 주류를 배정하고 남게되는 나머지 25개의 간격기호(gap notations)들은 앞으로 主類의 수가 증가할 경우 이들을 적절히 중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배정하고 특히 사회과학분야와 기술과학분야는 더욱 細分化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다 많은 공란을 배정해 두고자 한다.

## 〈丑 14〉

## Main Class of PCC

00	Generalities		recreational arts
01	Computer science	23	Sports
02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	Psychology
		25	
03		26	History
04	Communication	27	Geography
06	Journalism	28	Social science
06		29	
07	Humanities	30	Sociology
08	Philosophy	31	Social services
09	Religion	32	General statistics
10		33	
11	Language and linguistics	34	Education
12	Literature	35	Political science
13	Arts	36	Public administration
14	Civic and landscape arts	37	
15		38	Law
16	Visual arts (Decorative arts)	39	Customs folklore
		40	Home economics and family living
17	Pictorial arts(Painting)		
18	Plastic arts Sculpture	41	
19	Building arts (Architecture)	42	Economics
		43	Management science
20		44	Commerce
21	Music	45	Transport
22	Performing and	46	

47	Natural science (Purc science)	71	Promotion of health
		72	
48	Mathmatics	73	Agriculture
49	Physics	74	Animal husbandry
50	Chemistry	75	Nautical engineering
51		76	
52	Biology(Life science)	77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
53	Genetic engineering	78	Applied physics
54	Botanical science	79	Chemical engineering
55	Zoological science	80	
56		81	Electrical engineering
57	Palcontology	82	Electronic engineering
58	Earth science	83	Astronautical engineering
59	Astronomy	84	
60		85	Machine engineering
61	Technology	86	Mining and related operations
62	Medical science	87	Military engineering
63	Human physiology and anatomy	88	
64		89	Naval engineering
65	Disease	90	Civil engineering
66	Pharmacology and therapcutics	91	Environmental engineering
67	Surgery	92	
68		93	Food technology
69	Gynecology and experimental medicine	94	Manufacturing
		95	
70	Oriental medicine	96	Manufacture for

specific uses	98
97 Building engineering	99

### Ⅲ. PCC의 제2단계 設計

#### A. 主類의 伸縮

이상에 열거된 主類表는 각 주류별 설계가 완성될 때 까지는 감정적인 것이다. 이들 75개의 主類는 앞으로 기존의 주요 분류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類別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순위를 다시 조절할 수도 있고, 이상의 주류이외에도 주류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가 발견되면 이를 적절한 위치에 추가삽입 하고자 한다.

#### B. 綱이하의 細分

각 類內에서의 세분전개도 역시 百進式展開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十進式展開도 병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技術科學 등과 같이 광범한 주제는 그 밑에서 세분전개될 항목수가 극히 적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광범한 주제 밑에 전개된 기본주제 즉 人文科學의 경우 철학, 종교, 어학, 문학, 예술 등의 주제에서 세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두자리수 전개 보다 한자리수로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주류의 배열에 있어서와 같이 앞으로 더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는 적절한 자리에 空白의 자리를 남겨두고자 한다. 한편 각 綱이나 目에서는 공통적으로 세분전개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수세분표를 편성하여 이에 따라 세분하므로써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단 그 전개방식은 역시 百進式전개를 원칙으로 하되 十進式이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는 한자리수로 전개하고자 한다.

### C. 기호의 組合과 制限

PCC에는 분류표에 열거되지 않은 번호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D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특수한 분류번호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앞으로 마련될 補助表를 사용해서 기본분류에 전개된 분류번호와 組合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분류번호는 항상 기본분류표에서 취하며 부가적인 요소는 기본분류표나 보조표에서 얻어지게 될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각 요소의 순서는 분류표나 보조표에 있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PCC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복합주제를 가진 문헌 또는 여러가지요소(facets)를 포함하는 문헌의 경우 형식구분, 시대구분, 지리구분, 언어 구분 등의 보조기호이외에는 여러주제 또는 여러요소중에서 가장 우세한 하나의 요소에 한해서 조합한다. 다시 말하면 CC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주제와 여러가지 요소(facts)를 포함하는 문헌의 경우 이들을 모두 하나의 복합적인 분류번호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단 기타의 요소는 별도의 분류번호부출표목으로써 또는 自然語의 표목으로써 목록에 의해서 검색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시대구분기호와 지리구분기호는 분류번호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원괄호내에 기입하고, 지리구분과 시대구분이 동시에 기입될 경우는 지리구분기호를 먼저 기입하고, 시대구분기호는 대쉬를 앞세워 적는다.

도서관의 분류는 두가지 목적을 가진다. 즉 하나는 서가상에 있어서의 資料의 배열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용자에게 검색의 접근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배열순서가 가능한한 간단하고 명확하여 배열이 용이하고 이용자들이 문헌을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만약 CC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각기 다른 복잡한 기호로 구성된 분류번호를 통해서 文獻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다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맹목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복잡하게 구성된 분류기호는 우선 이용자들이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도서관측에서 서가상의 배열이나 문헌의 검색에 있어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문헌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복합적인 주제나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헌을 그렇게 복잡한 분류기호에 의해서만 검색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검색은 目錄의 標目에 나타난 自然語를 통해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는 이와같은 目錄과의 相助性(symbiosis)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분류번호구성에 있어서는 組合의 절차가 끝난 후에 처음의 네자리수 다음에 소숫점을 찍는다. 그러나 組合절차가 끝난 분류번호는 가장 긴 번호라 할지라도 10자리수를 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리구분과 시대구분번호는 歷史나 地理분야 이외에는 분류번호와는 별도로 行을 달리하여 기입되기 때문이다.

## Plan for Centesimal Classification(PCC)

Jeong Pil-Mo\*

### ABSTRACT

DDC, LCC, and CC can be said as the major schemes for modern general library classification. Among these, DDC, since its publication in 1876,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and revised by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publish 20th edition in 1989; LCC also has been studied and revised by the specialists in each subject, since 1904; and CC(first edition 1933) is now on the stage of 7th edition(1987).

Even though studied, revised and developed by many classificationists, all these schemes maintain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beginning, only with the partial revision and expansion to reflect the developments of the subjects, and anticipated tremendous amount of works resulted from reclassification also can be a reason that disturbs the full innovative revision of the scheme, because these are used in many libraries as a basic tools for the classification. But all these schemes mainly based on the state of the discipline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and so in some aspect it is natural for them to have many problem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in these major schemes, to find some ways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suggest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oongang University.

---

the ideas for the basic design of a new modern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This plan is prepared to be applied to the situation of all countries equally without any revision. And in its notation, it uses two digits of Arabic numerals as centesimal, and so it is named provisionally to Plan for Centesimal Classification (PCC).